- ①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면 등록카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② 은혜로운 에배를 위해 예배시간에 핸드폰은 무음이나 꺼두시기 바랍니다.

01 종려주일/고난주간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 이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1일 1끼 금 식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02 예배

본 교회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예배당(본당 및 부속실 포함) 20% 이내 인원으로 현장예배와 온라인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도 유치부(유튜브), 초등부(줌), 중고등부(듀오)로 현장예배와 함께 온라인 예배를 같이 합니다.

03 120일 성경통독

4월 5일부터 '120일 성경통독'을 시작합니다. 1층 로비에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영적무장을 하여 어려운 시대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대상 : 초등학생-장년 중 신청자

기간: 120일간

신청 : 3/21-4/4 (온라인 또는 사무실)

04 수요기도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수요기도회는 부서, 혹은 선교회별로 드립니다. 해당되는 분들만 수요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 남자구역장,남선교회임원 4/7: 여선교회임원

교우 소식

입원 : 홍은표집사(참좋은병원) 전시 : 서상호집사(1층 로비)

| 1.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 2월 17일-4월 3일 | 사순절 |
|------------------------------|--------------|--------------------------|
| 2. 코로나19 종식과 의료진을 위하여 | 3월 28일 | 종려주일 |
| 3. 제일명성교회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 3월 29일-4월 3일 | 고난주간 |
| 4.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 4월 4일 | 부활주일 |
| 5. 환우들과 가 족들을 위하여 | 4월 5일 | 120일 성경 통독 시작 |

광주제일명성교회는 2014년 1월25일 창립 예배를 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명성** 있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하나이지만, 이 교회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 | 1부 0 | 7:00 | 본당 예배실 | |
|-----------------|------------|--------|-------------|--|
| 주 일 예 배 | 2부 0 | 9:00 | 본당 예배실 | |
| | 3부 1 | 1:00 | 본당 예배실 | |
| 주일찬양예배 14:00 | | 본당 예배실 | | |
| 수 요 기 도 회 19:00 | | 0 | 본당 예배실 | |
| 새 벽 기 도 회 | 05:30(월~금) | | 본당 예배실 | |
| 세탁기포회 | 06:00(토) | | | |
| 탁 아 부 | 09:00/1 | 1:00 | 비전센터 4층 사랑실 | |
| 유 치 부 | 11:0 | 0 | 비전센터 3층 소망실 | |
| 초 등 부 | 11:0 | 0 | 비전센터 2층 믿음실 | |
| 중 고 등 부 | 09:00 | | 비전센터 5층 은혜실 | |
| 청 년 부 | 13:3 | 0 | 비전센터 5층 은혜실 | |
| | | | | |

| 담임목사 | 윤호식 |
|----------|-----------------|
| 부목사 | 문성우 박순영 장중현 |
| 전도사 | 김상태 이원규 |
| 원로장로 | 최진호 |
| 은퇴(협동)장로 | 석용문 윤동섭 변춘식 |
| 시무장로 | 박인순 차덕조 정명희 최영식 |
| 지휘자 | 강신모 윤정민 한경민 |
| 반주자 | 김범준 김슬기 박은영 하은미 |

1 강대권·함선희(네팔)

2 김진수·류선혜(키르키스스탄)

3 엄기정·이해정(요르단)

4 오베드로·이신영(브라질)

5 대현교회

6 비전명성교회

7 우이도서부교회

8 동리교회

9 선공교회

10 부산온누리교회

11 예수마음교회

12 이삭선교회

13 명목선교회

14 아프리카선교회

15 GH선교회

16 범양선교회

17 서울장신대학교

18 C채널

캄보디아 개척교회

프놈교회·뜰라잉뽀아교회 꼭쓰다으교회· 뜨러빠엑교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주여! 이제 한복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시51:12)

0 2 1

3월 28일 8권 13호

| | 1부 07:00 | 2부 09:00 | 3부 11:00 | | | |
|------------------|----------|-------------|----------|--|--|--|
| 여 는 찬 양 | | 주 기 도 문 | | | | |
| 예 배 선 포 | | 인 도 자 | | | | |
| 찬 송 | | 9장 | | | | |
| 공동기도문 | | 다 같 이 | | | | |
| 신 앙 고 백 | | 사 도 신 경 | | | | |
| 찬 송 | | 29장 | | | | |
| 기 도 | 송길선 권사 | 윤선례 권사 | 권경자 권사 | | | |
| 교 회 소 식 새가족환영 | 인 도 자 | | | | | |
| | | 행 8:26-35 | | | | |
| 성 경 봉 독 | 정선영 집사 | 한진기 집사 | 최현숙 집사 | | | |
| 찬 양 | 한경민 집사 | 장의옥 권사 | 윤정민 집사 | | | |
| 오늘의말씀 | "말씀을 읽고 | 고 깨닫는 자는 복이 | 있습니다" | | | |
| | | 윤호식 목사 | | | | |
| 봉 헌 | | 546장 | | | | |
| 친 교 | 다 같 이 | | | | | |
| 송 영 | | 주님 말씀하시면 | | | | |
| 축 도 | | 윤호식 목사 | | | | |

*표는 일어서 주십시오

오후1시30분

| 주 | 일 | 4 | 부 | 예 | 배 |
|---|---|---|------------|---|----|
| 찬 | 양 | | 나의 피난처 예수 | | 예수 |
| 기 | 도 | | 변승지 | | |
| 성 | 경 | | 요 13:21-30 | | |
| 설 | 교 | | 박순영 목사 | | |
| 축 | 도 | | 박순영 목사 | | |

| 찬 | 양 | | 찬 | 양 | 팀 |
|-----|----|-----------------|----|------|----|
| 기 | 도 | | 박인 | l순 경 | 상로 |
| 성경통 | 봉독 | ··· 롬 5:3-4 ··· | 인 | 도 | 자 |
| 찬 | 송 | | 다 | 같 | 이 |
| 설 | 교 |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 윤호 | 호식 등 | 목사 |
| 축 | 도 | | 윤호 | 5식 - | 목사 |

| 3/29(월) | 요 2:13-22 |
|---------|------------|
| 3/30(화) | 마 24:1-14 |
| 3/31(수) | 요 12:1-8 |
| 4/1(목) | 요 13:1-11 |
| 4/2(금) | 눅 23:34 |
| 4/3(토) | 요 19:38-42 |

줌(zoom)으로 비대면예배를 드립니다.

4월부터 매 주 화요일에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 화/오전10:30(줌으로)

오후7시

| ■ 대표기도 | 1부 | 2부 | 3부 |
|--------|-----|-----|-----|
| 4/4 | 정명희 | 차덕조 | 최영식 |
| 4/11 | 이종길 | 장복실 | 강예식 |
| 4/18 | 문명숙 | 이선옥 | 이명호 |

| ■ 성경 봉독 | 1부 | 2부 | 3부 |
|--------------------|-------------|-----|-----|
| 4/4 | 이현경 | 김광재 | 염영옥 |
| 4/11 | 홍순자 | 박정옥 | 류전남 |
| 4/18 | 고 경규 | 반혜미 | 장해주 |

1. 월례회 및 각종 모임

각종 부서 월례회 및 모든 종류의 모임을 중단합니다. 특별한 지침이 있기 전까지 공모임 뿐 아니라 교회 내 친교 모임 또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 난 주 등 록

■ 2021년도 등록자

한주동(3남선교회) 김정옥(사라여선교회) 김명기(4남선교회)

제 목: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디모데후서 3:16-17)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고 사람이 제작했지만, 하나님의 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 책입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물론 성경책이 아니어도 좋은 책도 많습니다. 베스트 셀러도 있습니다. 꼭 성경 책이 아니어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책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영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이를 통해서 사무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기록하게 하십니 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제자들을 통해서 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영의 양식인 말씀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 정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의 단계가 있습니다. 공부하려면 한글을 배워야 합니다. 숫자도 배워야 합니다. 더 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중고등 대학교…. 더 높은 학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 지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벧전2:2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 이라" 아이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젖을 먹어야 합니다. 분유도 먹고 이유식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아이들이 영양부족이 되어서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을 갓난아이에 비유했습니다.

모든 생물은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건강하게 자랍니다. 믿음도 영양 공급을 잘 받아야 건강하고 힘 있는 신앙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영양소는 바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영양결핍이 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 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지킬 때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살립니다. ♣시19:7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 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를 회복시키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하나 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됩니다. 말씀이 우리의 확실한 이정표이기 때문입 LIL

최고의 선생님은 성경책입니다. 초등학교 졸업 못 해도 괜찮습니다. 대학교 못가도 괜찮습니다. 좋은 선생님 좋은 교수님 못 만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책이 최고의 스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많은 분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성경을 읽고 있는지 몇 번 읽었는지 1년에 몇 번 읽는지 그런데 대답한 사람 등이 크게 두 가지 이유록 들었습니다

- 너무 바쁘다고 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의 최고의 수단이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인 성장 특히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분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의 만족과 성취를 위해서 달리지 무엇 하러 성경책을 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 리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게 하도록 바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탄이 뿔 달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장하여 나타 납니다. 바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내 삶이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면 잘못된 것이다. 성경보 다 더 좋은 책 읽지 왜 옛날 책을 읽느냐고 합니다. 위로와 회복을 주는 책을 읽게 한다. 그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멈추어 서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 ❷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서 못 읽겠다는 것입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어렵습니 다. 쉬운 동화책 아닙니다. 육법에 관한 것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도 있고 역사도 있고 성경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도 쉽지 않은 용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는 핑계로 그만두게 하는 것도 사탄의 전략입니다. 읽으면 달라집 니다. 읽다 보면 보입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에 기도하고 읽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깨닫게 해 주십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꼭 읽어야 합니까? 예 꼭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 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래야 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장해야 이 땅에서 하나님 사 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계1:3"이 예언 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120일 성경통독 참여 방법

- 1. 확인 매일 아침 카톡방에 성경통독 범위와 개요가 올라옵니다.
- 2. 준비 집중하여 읽고 깨달을 수 있기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 3. 개요 읽기 본문 개요를 읽고 그날 성경 내용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 4. 성경 읽기 편안하게 집중해서 듣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5. 묵상 - 읽다가 마음에 와닿은 구절은 따로 묵상하고 메모합니다.
- 6. 나눔 읽기를 마친 후 '마음에 와닿은 한 구절"묵상'을 카톡에 올립니다.
- ** 나눔은 간단히 자유롭게 해도 되며,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올리고, 늦었으면 다음 날 올립니다.
- ** 쉬운 말로 번역된 다른 성경 버전으로 읽어도 좋습니다.
- ** 모두 함께 완독하도록 서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입조

강예식 노옥숙 백윤남 변승지 변춘식 신수지 윤은섭 정명희 정순희 조옥순 최진호 하은미 무 명

■ 감사헌금

강대희 강예식 강용중 강인환 권경자 김영춘 김희녀 노옥숙 문다윗 문성우 문지연 박원기 변승지 복 회 송길선 신동현 오현애 윤호식 이기세 이기옥 이덕수 이복순 정선영B 정진숙 정필녀 채석진 하나경 하상호 한옥희

■ 주정허금

권영숙 김귀근 김만수 김일곤 김정옥 모영자 박인순 박혜미 변성진 손막동 엄만유 윤동섭 윤선례 윤승민 윤정민 이원규 이용찬 이종부 이향실 이혜숙 장재욱 정영규 제언희 조근석 차금미 최경란 최영식 최윤주 황수흔

■ 선교헌금

강예식 복 회 정명회 정유진 조미애 조옥순 황인순

■ 건축헌금

김광재

■ 장학헌금

강용중 김인숙 석용문 정유진 정윤옥

온라인헌금안내

국민은행 633801-04-069570(광주제일명성교회) 예) 십일-홍길동, 감사-홍길동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도 마음도 생활 전체가 건강하도록 지켜주세요. 깨어서 기도하며 성 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족의 건강 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마음 깊이 감사를 드 립니다. 어머니의 건강 회복과 신앙 회복을 주시옵소서.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모든 감사 주 님께 드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 손들 건강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 도인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녀들의 가 정이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 믿음의 첫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녀의 결혼 문을 열어주옵소서, 동생을 도와주세요, 모든 일을 주님 께서 이루어 주시고 담당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무사히 귀국하게 하옵소서,

문화선교학교 / 선교동아리

| | 축구 | 탁 구 | 바 둑 | 족 구 | 등 산 | 볼 링 | 실버합창 |
|----|-----|-----|-----|-----|-----|-----|------|
| 부장 | 장재욱 | 김교민 | 정성환 | 석용문 | 김학수 | 홍순자 | 채석진 |
| 총무 | 김병조 | 박인순 | 이종구 | 이승수 | 한상준 | 한경민 | 장복실 |